

버리지 못하는 동족대결의 악습

남조선군부가 동족대결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국방부 장관이 《유엔군사령부》창설 70년을 계기로 남조선장점 미군사령관에게 《축사서신》이라는 것을 보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했던 고용병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을 모아놓고 《6.25전쟁 70주년 유엔군참전의 날》 기념식과 같은 각종 광대극도 베풀어 벌여놓았다고 한다.

이 3년간에 걸치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거리와 마을, 공장과 농촌이 여지없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침략자들이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공화국북반부지역에서 감행한 야수적인 대중적학살만행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당시 신천군에서만도 군내 총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학살되었다.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러갔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가하였던 어중이떠중이들을 모아놓고 그 무슨 《기념행사》라는 것을 벌여놓는 것은 침략자들의 죄행을 미화분식하고 수치스러운 참패의 역사를 가리워보려는 해피망측한 추태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이 이미 없어졌어야 할 전쟁의 유물을 싸고도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 의세를 등에 업고 부침야망을 실현해보자는 것이다. 오늘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동족대결기도는 갈수록 로골화되고 있다.

최근 남조선호전광들이 새로운 탄도미사일개발에 열을 올리는 한편 각종 첨단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첨단무장장비개발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우려한 반입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다.

《한미실무그룹 해체,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주로총, 《한국로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중공동행동, 《한국조민련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가 지난 7월 25일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3722개 단체 비상시국선언 발표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서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한미실무그룹을 해체하고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지 또는 폐지할 것을 우리는 강경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미국대사관 앞에는 《미국은 들어라, 한미실무그룹 해체하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대형현수막이 펼쳐졌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한미실무그룹 해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7.25법국민행동의 날》이 진행되었다.

《7.25법국민행동의 날》은 서울뿐 아니라 대전, 세종, 충남, 전북, 강원, 대구, 울산, 부산, 경남 등 많은 지역에서 현수막행진과 평화의 집정다리, 시국대회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열렸으며 광주, 전남에서는 이보다 앞서 7월 23일 평화행동이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내외호전세력들의 전쟁연습체동을 반대하여 투쟁을 벌이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의 《미래통합당》이 못된 버릇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떼쓰기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나든 그 때, 이전 보수 《정권》의 《경제계약》의 후과로 빚어진 물가상승이나 일자리문제와 같은 경제문제, 민생문제도 무조건 《누구 탓》이라고 우겨댁니다.

고작 한주일정도 《단식》을 하면서 몰래 영양제주사를 맞았는지, 임신부까지 동원해서 사람들의 접근을 방지하고 취침에 방해되지 않게 소음을 방지한다고 법석을 떨어 민심으로부터 뒤흔어 내고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것은 《무조건 반대》에 《다치고 퇴장》뿐이니 앞으로 그 1000여건을 토의하면 1000번이나 싸우고 퇴장하는 꼴이나 지루해서 어떻게 봐주겠습니까. 한살 더 먹으면서 귀부러 마쳤는지 민생을 살리라는 민심의 말귀도 알아듣지 못

고일어나 퇴장하는 방법을 미리 다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변신》을 한다면서 당명도 바꾸겠다고 웅모를 하는 모양인데 이 기회에 하나 추천할까 합니다. 《미래퇴장당》!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퇴장하고 정치에서 퇴장하고 민생에서 퇴장하고... 나아가서 사회에서 퇴장하고 남조선땅에서 퇴장하면 인민들이 한결 편안해질 것이 아닙니까. 미리 퇴장하는 것도 편함을 찾습니다.

얼마전 남조선의 《미래통합당》이 《세월》호유가족대표들과의 비공개면담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지금껏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유가족들의 면담요청에 대구 한번 하지 않던 보수패당이 이번엔 면담에 응한 것은 오이발에 가지가 달렸다는 것만 큼이나 회한한 일이라 해야 할 것이다. 하기가 별의별 치사한 짓거리로 민심의 광대극을 연이어 연출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이고 보면 요즘한 일이 무슨 대수겠는가.

문제는 면담과정에서 드러난 보수패당의 너절한 속내이다. 이번 《세월》호유가족들은 《미래통합당》에 《세월》호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 진상규명철폐, 망발자제 등 3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보수패당은 저들이 쏟아낸 망발에 대해서 《실수가 많았다》, 《본의가 아니었다》, 《절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노족을 뻔뻔하게 도정작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의 핵심인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관련해서는 《결정하기 어렵다》며 도리머리를 흔들었다고 한다.

추진되어야 할 낫뜨거운

그런데 보수패당은 저들이 쏟아낸 망발에 대해서 《실수가 많았다》, 《본의가 아니었다》, 《절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노족을 뻔뻔하게 도정작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의 핵심인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관련해서는 《결정하기 어렵다》며 도리머리를 흔들었다고 한다.

김은 속통이 들여다보이는 보수패당의 낫뜨거운 추태가 실은 아직도 어둠속에 묻혀 있다. 6년세월 차디찬 눈비속에서도 위임없이 이어간 《세월》호참사유가족들과 남조선인민들의 진상규명투쟁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라가 공인하듯이 보수패당의 끈질긴

김정혁

《미래퇴장당》

저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거리밖에 뛰쳐나가 고향을 지르고 머리를 뺨박 깎지 않으면 세상 난 아이들 뺨뽀뽀리듯 밥 안 먹으래 하고 나자빠집니다. 《미래통합당》의 이런 당대표라든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를 철회하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포기하라, 선거제도개편안을 철회하라하고 고야대며 《죽기를 각오》한 《무기한 단식》이라는 것을 벌여놓았던 것을 보십시오.

이른바 정치를 한답시고 벼타이를 매고 《국회》 등을 드나들지만 노는 꼴은 꼭 꼴콜러개보다도 못하니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을 가리켜 《발목잡기정당》, 《떼쓰기정당》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먹고 놀고 싸지만 미래통합당은 국회에서 먹고 놀고 싸운다.》고 놀려댔겠습니까. 한살 더 먹으면 철이 좀 들 줄 알았더니 올해도 《미래통합당》의 떼쓰기본성은 여전히입니다.

마당에 표절을 앞두고 《미래통합당》만 일제히 퇴장했다니 좋습니다. 《혁신》, 《쇄신》으로 《빠가지 바꾸겠다》더니 떼쓰기방법을 먼저 바꾸었다. 민생이든, 《COVID-19》이든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퇴장합니다. 《부동산법》론의때도 퇴장, 《공수처법》의결때도 퇴장. 《국회》에 목어 쌓여있는 《민생법안》이 1000여건이나 된다던데 《미래통합당》

해, 일하는 《국회》를 좀 보자는데도 제 맘에 맞지 않는다고 뺨뽀뽀리면서 찾아가는 것밖에 몰라, 이래보이니 《미래통합당》이 아무리 《혁신》을 한대, 《정책장장》을 바꾼대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누구의 《실정》을 두지고 따지고 비판하는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10여개나 만들었다더니 아마 거기서 《국회》운영대 막말에 비꼬는 소리만 내뱉고는 일제히 들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퇴장하고 정치에서 퇴장하고 민생에서 퇴장하고... 나아가서 사회에서 퇴장하고 남조선땅에서 퇴장하면 인민들이 한결 편안해질 것이 아닙니까. 미리 퇴장하는 것도 편함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생은 안중에 없이 제 리속만 채우는 부패정당, 독재학수에 젖어 과거로만 줄달음치는 《독재회귀당》, 민족의 운명은 내팽개치고 의세에만 빌붙는 사대부리들을 남조선인민들이 강제퇴진시킬테니까요. 조물의 바다를 이루어 보수 《정권》을 거꾸러뜨린 것처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는 남조선인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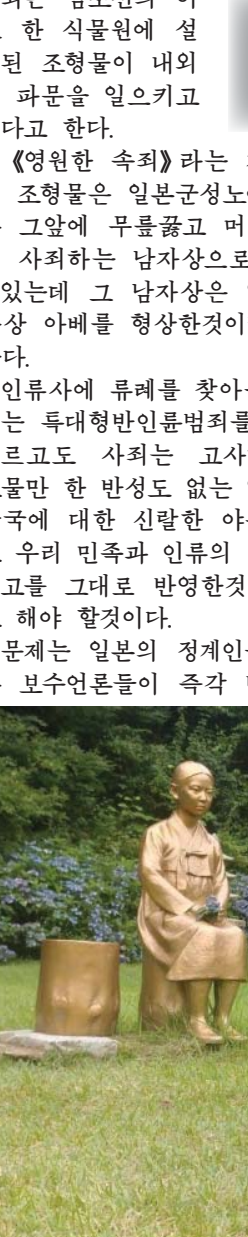
김정혁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일본이 과거 조선사람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한 것은 세월이 흘러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귀족같은 대범죄이다. 일본이 얼마나 야수적으로, 잔인무도하게 조선사람들을 학살했는가를 아는 것은 피비린 《간도토벌》 하나만을 놓고서도 잘 알 수 있다. 지난 시기 중국의 연길현, 왕청현, 훈춘현, 화룡현, 안도현, 장백현, 무송현, 립강현일대를 포괄하는 지대를 간도라고 불렀다. 이곳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잇닿아있는 곳으로서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이 많이 이주해가서 사는 곳이었다. 특히 일제가 조선강점후 랑탈과 폭압을 강화하면서 살길이 막힌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설고 물심은 간도땅에 삶의 보 집을 풀었다. 만주로 간 조선사람의 수는 1926년에 벌써 54만

4000여명에 달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간도땅에 집을 풀고 간도한다. 간도땅은 일제의 탄압을 피하여온 조선독립군들을 비롯한 애국자들도 많이 집결되어있어 반일기운이 강한 지역으로 되고 있었다. 하여 일제는 간도땅의 조선사람들을 대량학살하기 위해 이른바 《훈춘사건》을 조작하였다. 일제는 1920년 10월 훈춘지방에서 어느 한 군벌을 매수하여 그로 하여금 조선독립군을 먼저 공격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그 책임을 조선독립군에 넘겨주고 《간도재류일본인의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라남주둔 제19사단의 한개 연대병력(3000여명)과 함경남도경찰대, 세비리출동군, 만철수비대 등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훈춘일대의 조선사람들의 부락과 집들을 습격하여 모조리 불살라버리고 이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토벌》을 감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피의 력사로 알려진 《경년토벌》 혹은 《간도토벌》로 알려진 훈춘대학살사건이었다. 일제의 간도살상행위는 훈춘뿐만 아니라 간도땅 그 어디에서나 감행되었다. 일제야수들은 조선사람이

사는 부락이라면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모조리 《토벌》하여 집과 학교를 불태워버렸으며 조선사람이려면 남녀로소 가림없이 무참히 학살하였다. 일제는 간도땅 이르러는 곳마다에서 조선사람들을 사지를 찢어죽이고 목과 팔다리를 도막내어 죽이었고 집 단적으로 생매장하여 학살하였다. 지어 일제는 친전란만한 어린이들을 부모의 품에서 빼앗아 불붙는 집에 던져죽이는 귀족같은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 《토벌》에서 일제는 6000여호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의 집을 파괴하고 불태워버렸으며 수만명의 조선인들을 약탈학살하여 살해함으로써 간도땅을 피바다로 만들었다. 인간백성 일제고형리들은 간도천지가 원한많은 조선사람들의 붉은 피로 물든것을 보고 《토벌작전의 승리》라고 하면서 그것을 《경축》하는 축배를 들었으며 조선주둔군사령관이란자는 라남19사단에 표창장까지 보냈다. 《간도토벌》은 인두검을 쓴 야만의 무리인 일제의 살인마적기질과 죄악을 오늘날도 세상에 달날이 고발하고 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영원히 속죄하여야 한다

《영원한 속죄》라는 제목의 조형물은 일본군성노예상과 그앞에 무릎꿇고 머리숙여 사죄하는 남자상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상은 일본수상 아베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인류사에 인류를 찾아볼수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도 사죄는 고사하고 표몰만 한 반성도 없는 일본당국에 대한 신랄한 야유이고 우리 민족과 인민의 엄한 경고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일본의 정계인물들과 보수언론들이 즉각 반발하면서 《국재판례에 어긋난다》, 남조선일본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것》이라고 아무렇게나 치다못해 위협까지 하고있는 것이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일본군성노예범죄가 일본자신이 마땅히 사죄배상하고 영원히 속죄해야 할 특대형반인륜범죄가 아니란 말인가. 일제강점시기 일본군성노예로 끌려간 조선녀성만도 20만명이다. 그들의 육체와 청춘과 미래를 마구 란도질한 치명리는 과거죄악에 대해 인정하고 사

죄배상할 대신 일본군성노예가 아니라 《매춘부》라고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정부금의 사죄대신 《군의 권여》라고 얼버무리었으며 남조선의 이전 보수 《정권》에 몇푼의 돈을 던져주고는 그것마저도 배상이 아니라 《기부금》이라고, 《잃은것은 10억불뿐》이라고 떠벌인 것이 바로 아베정권이다. 남조선과 세계 여러 지역에 세워지는 일본군성노예상을 철거시켜버리고 《항의》를 하고 돈뭉치를 흔들고 지어 오물까지 뿌리는 추악한 망동을 벌인 것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한마디의 사죄도, 한푼의 배상도 없이 과거청산이 끝났듯이 반인륜범죄를 놀아대며 갖은 오그랑수를 쓰고있는 아베일당이다. 폭우에 부은 물 발뒤꿈치까지 흐른다고 아베정권의 분을 따 일본은 우익계급들은 《조선인을 발견하면 돌을 던지라》, 《조선

녀성들은 강간해도 된다》고 고야대며 피의 광기를 뽐내고 있다. 예로부터 군주가 아둔하고 신화가 어리석으면 못하는 것이 없더니 지금의 일본을 보면 마치 1920년대의 간포대지진때 《조선사람들이 무릎에 독을 찌다》며 떠치는대로 잡아 학살하던 살풍경을 보는 것 같은 섬뜩한 느낌이다. 그렇게 광심도 도덕과 인륜도 모르는 무리들에게 일본에게는 21세기의 오늘에도 여전히 전범국, 야만국가, 경제동물이라는 오명이 따라다니고있는 것이다. 지도상에서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목대가 꺾어지고 팔다리도 잘리운채 쫓겨난 대륙에 다시 붙어보고 싶어 바다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꼴로 보인다. 하지만 짐승도 낮을 불활국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르고 얼굴 불활출도 모른체 피비린내나는 상통을 여기까지 들이밀며 《보통국가》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야만국가, 야수의 후예들을 도대체 어는 나라, 어느 민족이 받아들이자고 하겠는가. 국제사회가 저들을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황군》의

《육일기》를 뻔뻔스럽게 국제무대에 등장시키고 침략과 전쟁을 합리화하는 헌법개정에 그악스럽게 매달리고있으니 이제 일본이라는 몸통이 《대동아공영권》망상, 조선반도와 아시아 대륙제정의 야망으로 쪼물거리는 빈대기가 되어 군국주의 부나비들을 부화할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언젠면 일본이 올바른 지성의 높이에서 사고하고 내다볼 줄 알게 되었는지. 《영원한 속죄》의 조형물만 놓고보아도 그것이 조선민족의 목소리이고 세계 일본에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반성하는 기미라도 보였더라면 철이 좀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일본의 언행을 보아서는 언젠가도 정치난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것 같지 않다. 수치가 무엇이고 량심이 어떤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일본은 언젠가 내려다본 정체인들은 국제무대에서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속죄》의 조형물이 상징해주듯 과거에 엄청난 큰 죄악을 저지르고 오늘 이 시각까지도 자그마한 반성의 기미도 없는 일본은 우리 민족과 인류앞에 영원히 속죄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리서철

간도땅에 피비린내를 흘려주는